

DuPont, 전쟁 이후 최대 수혜기업!

글로벌에셋, 미국의 압도적 우세 예상 ... 시장전문가는 동의하지 않아

미국의 Alcoa(Aluminum Company of America), DuPont 등이 제조기업 가운데 미국-이라크 전쟁의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.

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의 제임스 어베이트 투자담당이사는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Alcoa와 DuPont이 미국-이라크 전쟁의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. 글로벌 에셋 매니지먼트는 Alcoa와 DuPont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.

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의 토머스 매튼 부회장은 전후 경제성장 가속 과정에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을 들어 City Group의 주식을 매수해 왔다.

결프전 이후 6개월 동안 최대 수익률을 보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편입기업은 Home Depot와 Wal Mart였지만 시장관계자들은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3/31>